오늘 후보 등록 마감… 17대 대선 3대 관전 포인트

❶ BBK 수사결과 헛방, 한방?
❷ 범여·범보수 후보 단일화
❸ 복잡다단 지역 표심 향배는

26일 제17대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됨에 2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22일동안 공식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이번 대선은 '1강(强) 2중(中) 다약(多弱)'의 군웅할거 모양새를 띠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변수들이 잠복해 있어 최종 구도를 점치기가 힘든 상황이다. 막판 대선 정국의 3대 변수를 조명해본다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인 2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등록접수처에서 각 후보의 대리인들이 접수순서를 정하는 추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BBK 수사 결과**= 올해 대선 정국을 지배하는 이슈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헛방이냐, 한방이냐'가 결정되면서 대선 정국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만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이명박 후보가 기소라도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현재 1강 2중의 선거구도는 걷잡을 수 없는 대혼돈 상태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즉, 이명박 후보에 치명적 타격이 가해지면서 거의 낙마에 준하는 중대 국면에 봉착,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 완주론'과 '이회창 후보 대안론', '박근혜 전 대표로의 후보 교체론' 등이 복잡하게 교차하면서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범여권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을 수 있다. 보수 진영이 대혼란에 빠진 틈을 타 후보단일화 등을 통해 부동층의 표심을 모으면서 극적인 승리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결과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날 경우 상황은 완전히 정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BBK 주가조작 의혹이라는 산을 넘은 이명박 후보의'대세론'은 더욱 견고해지면서 40%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며 대선 국면을 일방적으로 주도해나갈 가능성이 높다.

◇**후보 단일화 여부**=이번 대선이 사상 초유의 예측불허 구도 속에서 출발함에 따라 후보단일화 여부는 범여권이나 범 보수 후보들에게 모두 최대의 변수다.

우선 범여권에서는 정동영 민주신당 후보의 지지율이 후보단일화 성공의 관건이다. 정 후보의 지지율과 민주당 이인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의 지지율 합이 1위 후보를 앞설 경우 단일화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반대의 경우는 세 후보 모두 레이스를 완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무소속 이회창 후보 등 보수 진영에서도 BBK 수사 결과에 따른 후보단일화가 거론되고 있다.

우선, 이회창 후보의 경우 선거 막판까지 큰 지지율이 차이로 이명박 후보에게 뒤지거나 범여권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대선 구도가 혼전에 빠질 경우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열려 있다.

즉, 이회창 후보가 사퇴하면서 사실상 이명박 후보로의 단일화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BBK 검찰 수사 결과가 이명박 후보의 기소 등으로 나올 경우, '대안론'이 부상하면서 대선 막판 이명박 후보가 대선을 포기하면서 이회창 후보로의 단일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의 BBK 수사 결과, 이명박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나라당은 이를 '공작정치'로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아 이회창 후보로의 후보단일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지역 표심 향배**=올해 대선에서는 과거처럼 극심한 지역 구도가 펼쳐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의 관심이 '경제 회복'에 집중된데다 보수와 진보, 민주와 반민주 등 과거의 대결구도가 옅어진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호남에서 정동영 후보는 유일하게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지지율은 30%대 후반~40%대 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호남에서 10%대 초반의 지지율을 꾸준히 유지하며 2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과거 대선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또한, 대구·경북(TK)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40%대 후반~50%대 초반, 이회창 후보가 20%대 중반의 지지율을 각각 보이고 있다.

부산·경남(PK)에서도 1위인 이명박 후보가 40%대 안팎이고, 이회창 후보가 20% 중반, 정동영 후보가 5~7%대 지지율을 기록 중이다.

충청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30%대 초반, 이회창 후보가 20% 중반, 정동영 후보가 10%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물론, 아직 대선까지는 22일이나 남아있다는 점에서 막판 지역 표심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압도적인 지역 표심이 표출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며 결국 수도권의 표심이 대선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만19세 유권자로 투표 참여

여론조사, 선거 6일전부터 발표 금지… 후보자 지지 공개 거리연설은 허용

■ 17대 대선 무엇이 달라졌나

이번 17대 대선에는 만 19세가 유권자로서 투표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다. 또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기간이 대폭 축소돼 여론조사가 막판까지 대선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앙당과 시도당 후원회가 폐지돼 각 정당은 어느 때보다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자 연령이 만 19세로 하향조정됐다. 올해 처음 한 표를 행사하는 만 19세 유권자는 60만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2002년 대선이 불과 57만여표 차로 당락이 결정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인 셈.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기간도 2002년 대선 때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였지만 이번에는 선거일 전 6일(12월13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시간(오후 6시)까지 축소됐다. 다만 공표금지 기간에도 공표만 하지 않는다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 자체는 허용된다.

이번 대선의 변화된 모습 중 하나는 중앙당과 시도당 후원회, 즉 정당 후원회가 폐지됐다는 점이다.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의혹사건 수사가 끝난 2004년 3월 정치권이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깨끗한 정치문화를 조성한다는 이유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대선 240일 전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정치신인의 선거운동 기회를 주는 예비후보 등록제도와 정당 경선에 나왔다가 떨어진 후보는 어떤 형태로든 대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제도도 이번 대선에서 새로이 도입된 부분이다.

선거운동 방법도 인터넷문화의 확산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상당히 변모됐다. 청중동원 등 폐해가 컸던 정당·후보자 연설회는 폐지됐지만 유권자가 많이 왕래하는 장소를 찾아다니며 후보자가 지지를 호소하는 공개장소 거리연설은 허용됐다.

16대 대선 때까지 국회의원·지방의원의 보궐선거에만 허용됐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 게시가 이번 대선에는 전면 허용됐다. 온라인의 영역이 커짐에 따라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상시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했고, 선거기간 중에는 인터넷 광고도 가능하다.

방송토론회의 중요성을 감안해 2002년 대선 때는 공영방송사 공동으로 3회 이상 토론회를 실시토록 했던 조항을 변경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3회 이상 토론회를 개최토록 했다. /연합뉴스

■ 후보자 기호 어떻게 정하나

정당 의석수 따라 결정 이번 '두자릿 수' 가능성

17대 대선에서 10여명이 넘는 후보들이 선관위에 등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후보 기호 부여 방식도 관심을 모은다. 나름대로 유력한 무소속 후보가 '두자릿수 기호'를 부여받게 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150조 규정에 따르면 후보 기호는 정당에 소속된 후보가 우선이고 무소속 후보는 뒤로 밀린다. 정당 소속 후보는 원내 의석 수가 많은 정당의 후보가 우선이며, 원내 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는 당명의 가나다 순으로 기호를 정한다. 무소속 후보는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정한다.

이 방식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기호 1번은 원내 140석의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차지가 되고, 기호 2번은 129석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될 전망이다. 기호 3번은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 4번은 7석인 민주당의 이인제 후보, 5번은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연합뉴스

선거법 퀴즈 풀고 상품도 타고

광주일보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현상퀴즈를 실시합니다. 퀴즈는 매주 월요일 한번씩 출제되며 두 문제를 모두 맞춘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 1명에게 고급 진공청소기를 우송해드립니다.

문 1] 이번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일까요?

① 11월 25일~12월 19일 ② 11월 25일~12월 18일
③ 11월 27일~12월 19일 ④ 11월 27일~12월 18일

문 2] 선심성 공약남발을 막으면서 후보자들이 내놓은 선거공약을 꼼꼼히 따져보아 투표 때 선택기준으로 삼고, 당선자가 임기 중 그 공약을 잘 이행하는지 지켜보자는 운동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① 공명선거운동 ② 매니페스토(Manifesto)운동
③ 공약선택운동 ④ 깨끗한 선거운동

※응모요령=엽서에 문1) 과 문2)의 정답을 적어 〈우편번호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 광주일보사 편집국 선거법퀴즈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세요. 매주 금요일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지난주 정답풀이

문 1] 다음중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 UCC(개인제작 동영상)는?
①특정후보를 개에 비유한 UCC ②정책대결을 촉구하는 UCC
③모두 기권하자고 주장하는 UCC ④특정후보의 거리선거운동 UCC 〈정답 ②〉

문 2]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부재자 신고기간입니다. 다음중 올바른 신고방법은? ① 인터넷 ② 전화 ③ 서면 또는 우편 ④이 메일 〈정답 ③〉

※지난주 퀴즈 당첨자 : 이종수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577

光州日報社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